염불공양 공덕, 인재불사로 회향

불교TV염불공양회, 고교 · 대학생에 장학금 수여

고교생 10명·대학생 7명 대상
2월 2일 기금 1200만원 전달
25년간 약 2억5000만원 지원
"무주상보시 실천 계속 앞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염불공양을 올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TV염불공양회가 명절을 앞두고 인재불사에 나서 훈훈함을 선사했다.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는 2월 2일 부산 범일동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7명에게 각 100만원 총 1200만원이 주어졌다. 전달식에는 하정선 회장, 안상희 부회장, 강지원 감사, 윤정희 재무감사를 비롯한 회원 40명과 장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

하정선 회장은 "오늘 학생들을 만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감이 든다. 장학금을 수여하며 수많은 학생을 만나왔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인사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노력해 의대에 가고 결혼해 병원장이 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보람이 되고 십시일반 회원들의 성금이 더욱 공덕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유정은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불교TV염불공양회에서 수여하는 장학생을 대표해 먼저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오늘 장학금은 저희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불제자로서 더욱 정진해 성장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회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불교TV염불공양회는 아미타 불국정토를 발원하며 1994년 3월 10일에 창립했다. 특히 어둡고 소외된 현장을 방문해 금강경을 독송 염불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25년간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장학사업은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시다림 염불을 요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형편상 망자를 위한 염불 요청도 불가능했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것.

하정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이들을 도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고, 이후 25년간 장학사업을 이어가며 전달한 장학금만 2억5000만원이 넘는다. 불교TV염불공양회는 동아대학교병원, 시민장례식장, 좋은강안병원, 착한 장례식장 등 여러 병원 및 장례식장에서 시다림 염불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님들의 다비 및 영결식을 방문해 추모의식에도 동참한다. 지난해는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추모의식과 정혜당 지오 스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영결식에 참배하며 〈금강경〉을 적어 올리고 염불공양을 했다.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법사과 졸업식 개최

불교학과 · 법사과 총 52명 졸업
모범적인 학인들 대상 시상식도
문수상에 박보중 · 전현아 · 장기영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42명과 법사과 10명 등 총 52명이 졸업했다.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6회 불교학과 및 제31회 법사과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42명과 법사과 10명 등 총 5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2월 4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은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신용표·이지복 부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장순금 전북불교대학전법사회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졸업생 등 80여 명이 동참했다.

시상식에서는 1년 동안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온 학인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최우수상인 문수상은 불교학과 박보중·전현아 학인, 법사과 장기영 학인이 수상했다.

보현상은 불교학과 유미희·박성만 학인, 법사과 이분임 학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관음상은 임순덕·문명호 학인, 반야상에는 오성종·오세창 학인, 전법사회장상인 발원상은 이태곤 학인, 총동문회장상인 원융상은 김석철 학인이 각각 수상했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 삼독으로 일어난 업을 모두 마치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따르고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준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지상의 온 대지를 덮을 수 있는 가죽을 구할 순 없지만 나의 두 발을 덮을 수 있는 가죽만으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화두로 삼고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임순덕 불자는 "불교대학에 발을 들여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겨우 접하나 했는데 졸업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저희도 이제 불심을 회복하여 '남'이라 내치고 분리하지 않고 '나'라고 내세우지 않는 '동체자비(同體慈悲)'의 삶을 살겠다"고 발원했다.

1988년 설립된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은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불교학과 100명, 불교학과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법사과 50명을 모집한다. 입학식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063)226-7878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계 거룩함, 여법하게 알리겠다"

인터뷰 제6대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자체 수계법회 규모 확대 목표
회원스님과 의사소통에도 주력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통해 거룩한 계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도록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사회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6대 회장으로 선출된 목종 스님이 사실상 임기 첫 해를 맞아 수계의 거룩함을 대중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2월 5일 전화인터뷰에서 "역대 회장스님들과 회원스님들의 뜻을 이어 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엄한 수계의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회원사찰과 신행단체의 참여를 이끈다는 목표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는 전국에서 열리는 수계의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참여 인원도 매회 1500여 명에 달한다. 신행단체를 통해 참여 방법을 확장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계식을 봉행하지 못한 작은 사찰과 계사가 없어 계를 받을 수 없는 신행단체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목종 스님은 내다보고 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 조계종부산연합회 발전을 위해 신도와 회원스님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견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의사소통의 주요 기구로 삼아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주 보덕사, 신도회 임원 위촉장 수여

김남규 신도회장 등 회장단에

울주군 가지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가 신도회 임원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

2월 4일 입춘기도 후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 신도회 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서범수 국회의원이 신도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효암 스님은 김치자 불자 등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신도회장에 김남규(서경종합건설대표) 불자, 수석부회장에 김동덕 불자 등 15명의 회장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순천 금룡사 극락보전 상량식 봉행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통식



순천 금룡사(주지 범일 스님)가 2월 4일 경내 극락보전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능엄경 보호각 이름으로 지어질 극락보전은 총 28평으로, 전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형식의 전통 건물이다. 지난 2023년 11월 4일 착공해 이날 상량식과 함께 아미타삼존불과 불단 등을 조성한 후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주지 범일 스님은 "극락보전 조성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2014-38호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원효종 (관등록 번호 26151-0048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사찰 등록증 및 승려증 갱신 안내


종회의장 청산 태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사찰 등록증 및 승려증을 갱신합니다.

현재의 등록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각 세무서로 공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본종 소속 사찰 및 스님들께서는 2월 말일까지 총무원으로 전화 신청하시어 3월 30일까지 사찰 등록증과 승려증을 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 등록증과 승려증은 3월 30일까지 일괄 갱신합니다. (갱신 비용 일체 없음)


총무원장 樂山 靑巖

귀의 삼보하옵고
上求菩提 下化衆生에 一道邁進 하고 계신
각 종단, 종정 예하 원로 큰 스님 사부대중들의
각 발원 원만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阿含經中 七佛通戒〉
아 함 경 중 칠 불 통 계

諸惡莫作 衆善奉行 諸惡을 짓지 말고
제 악 막 작 중 선 봉 행 衆善은 받들어 행하며
自淨其意 是諸佛教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것
자 정 기 의 시 제 불 교 이것이 諸佛의 가르침입니다

本宗 宗徒大衆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진합시다.

법 사 단 신 규 등 록 안 내


호법원장 영민 현응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에서는 혜은당 법홍 대종사께서 운영하시던 법사단을 확대하며 추가 신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비 10만원)
등록 절차는 전화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선원, 선방, 명상 센터,법당 등은 사단법인의 제도권에 동참하시어 더욱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TEL. (052)238-8010 FAX. (052)238-7010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용당내광로 291-2